'국어' 교육과정의 매체 언어 교육 내용*

김정자**

〈차 례〉

1. 디지털 한국인의 초상
2. 국어 교육에서 매체 언어 교육의 도입
3. '국어' 교육과정의 매체 언어 교육 내용 분석
4. 매체 언어 교육의 도입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5. 결론

1. 디지털 한국인의 초상

필자는 1990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처음 XT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도스(MS-DOS)로 컴퓨터를 부팅시키고 나서 그 당시에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던 도스용 '아래아 한글' 버전 1.0 프로그램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991년에는 286 AT 컴퓨터를 사용하여 석사논문을 작성했다. 이때까지 컴퓨터로 주로 하던 작업은 문서작성이었다. 그 후 필자의 컴퓨터는 386을 거쳐 펜티엄 컴퓨터로 변화했고, 그에 따라 운영 체제도 도스에서 윈도로 바뀌었다. 1997년에는 전화 모뎀을 통하여 하이텔, 즉 PC통신 세계에 입문했고,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우연히 하나로통신이 초고속

* 본 연구는 국어교육학회 제35회 학술발표대회(2006. 11. 25)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것임.

**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인터넷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했기에 99년 상용화에 앞서 98년 말부터 기존 전화망을 활용한 ADSL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컴퓨터는 오락기구나 단순한 문서작성기가 아니었다. 인터넷 세상은 무궁무진했고 컴퓨터로 하는 작업들은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난 더 이상 은행에 가지 않는다.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통장도 개설하고, 계좌이체도 하고 카드 사용 내역도 점검한다.

난 더 이상 시장에 가지 않는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 주 동안 먹을 식료품을 산다. 책을 사러 서점에 가지 않아도 된다.

난 더 이상 편지를 쓰지 않는다. 전자우편으로 중요한 업무 연락을 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부를 묻는다.

난 더 이상 종이 신문을 읽지 않는다. 포털 사이트에서 여러 신문사의 기사를 읽는다. 교육이나 정보 통신 같은 관심 분야의 기사는 스크랩도 하고, 신문 기사 검색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기도 한다.

난 더 이상 논문을 찾기 위해 도서관에 가지 않는다. 학술정보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논문을 검색하고 필요한 논문을 찾아 읽는다. 도서관에 가더라도 미리 검색을 하고 간다.

난 더 이상 공부하러 학원에 가지 않는다. 인터넷 영어 학원에서 보내주는 뉴스레터를 받아 보고, 인터넷으로 수강신청도 하고 영어 강의도 듣는다.

난 더 이상 종이에 글을 쓰지 않는다. 간단한 글도, 논문도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컴퓨터에서 쓴다. 글을 꼭 처음 부분부터 쓰지는 않는다. 생각이 다 여물지 않아도 일단 쓴다. 수없이 수정한다. 대학생일 때만 해도 종이에 펜으로 보고서를 썼다. 이젠 컴퓨터 앞에 앉지 않으면 글이 써지지 않는다.

난 텔레비전보다 컴퓨터 앞에 더 많이 앉아 있다. 인터넷은 나의 문화생활 창구이다. 인터넷을 통해 놓친 드라마도 보고, 때로는 영화도 본다.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가끔은 좋아하는 음악도 내려 받는다. 어떨 땐 평범한 일반인들이 제작한 동영상이 훨씬 재미있다.

난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다. 여행을 갈 때도, 외식을 할 때도 검색한다. 미리 가볼만한 곳의 정보를 찾아 정리하고, 찾아가는 지도도 콩나물에서 인쇄해 둔다. 무언가 궁금하면 일단 검색부터 한다.

난 사이버 세계에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자료를 내리고 중단하고 있지만 블로깅도 했고 카페도 운영하고 여러 카페에 회원

이기도 하다. 물론 강의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카페는 학생들과 나의 또 다른 소통 경로이다.

이것은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변화한 필자의 생활상이자, 매체와 관련해 필자가 경험하고 있는 정보화의 내용이다. 이것은 필자의 생활에서 크게 두 가지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나는 생각하고 기록하는 방식의 변화, 즉 정보와 지식의 생산, 저장, 유통 방식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 또는 세상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의 변화이다.

이것은 단지 필자 개인만의 특수한 매체 관련 경험은 아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06년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에 따르면 2006년 6월 현재 만 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는 33,580,000명이고 이용률은 73.5%라고 한다. 심지어 만 3~5세 아동의 이용 실태도 자료로 제시되어 있는데, 만 3~5세 아동 이용자는 850,000명이며 인터넷 이용률은 50.3%라고 한다.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의 80% 이상이 자료정보 획득, 이메일/채팅, 여가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13.3시간이다. 인터넷 이용으로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은 정보수집(72.1%)이며, 학생의 87.8%는 학교 과제를 하기 위한 자료 검색에 인터넷을 활용했다. 인터넷 이용자의 90.4%가 이메일 계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메신저 이용률은 47.3%이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인터넷 이용 초기에는 주로 정보검색과 이메일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블로그/미니홈피, 동호회/커뮤니티, 쇼핑/예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보고서는 "인터넷 이용이 기존의 정보에 대한 검색 및 활용이라는 수동적 도구에서, 표현하고 참여·공유하는 적극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인터넷은 이제 정보습득과 커뮤니케이션의 강력한 수단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사 결과 인터넷을 이용하기 전에는 TV(92.6%)가 가장 주된 정보 습득 수단이었으며, 다음으로 신문(79.9%), 서적, 잡지(63.1%)였는데, 현재는 인터넷(95.2%)이 가장 중요한 정보 습득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TV, 신문 등 다른 수단들의 이용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메신저, 채팅, 블로그/미니홈피, 이메일 등이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등장했다. 지인과의 연락이나 친교를 위한 각종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비중을 100으로 가정할 경우 '인터넷' 활용의 비중이 41.1%로 가장 높았으며(메신저·채팅 22.4%, 블로그/미니홈피 13.1%, 이메일 5.6%), 직접 만남은 30.3%, 이동전화(문자 포함) 16.4%, 유선전화 9.7%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자의 카페/커뮤니티 활동, 블로그/미니홈피 운영, 댓글달기, 퍼나르기, UCC 생산 등의 경험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91.6%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수단을 통해 참여 및 공유 활동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

매체의 변화와 발전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10년 남짓 세월이지만 인터넷은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 기업의 업무환경에서 개인 생활까지 모두 인터넷 환경으로 바뀌었다. 이정덕(2004)은 21세기 한국의 문화 혁명은 인터넷을 매개로 하고 있으며, 그 예로 2002년 월드컵, 촛불 시위, 2003년 대통령 선거 등을 들며 사회적 의제설정을 인터넷이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적인 측면으로 포털, 게임 등 10조에 이르는 디지털 콘텐츠, 7조원에 이르는 인터넷 쇼핑 등 인터넷과 연계된 다양한 사업들이 등장했다.

앞으로 변화는 더 예고되고 있다. 초고속무선인터넷, 휴대인터넷(WiBro) 등을 중심으로 광대역의 개념을 무선으로 확대하여, 언제 어디서나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비쿼터스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다. 인문학적 상상력이 부족한 필자로서는 이것이 개인의 생활과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1)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06년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와 [웹 2.0시대의 네티즌 인터넷 이용 현황]을 살펴볼 것

2. 국어 교육에서 매체 언어[2] 교육의 도입

2.1. 매체 언어 교육의 필요성

인류의 문화는 구어 문화에서 문자 문화(인쇄 문화)로, 문자 문화에서 전파 문화(또는 영상 문화)로, 전자 문화(디지털 매체 환경의 문화)로 이행되어 왔으며, 특히 현대의 매체 환경은 문자, 이미지, 소리 등이 결합된 다매체 환경의 문화로 이행되고 있다. 매체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매체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하루에도 사람들은 수없이 매체를 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즉 매일 신문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고, 인터넷에 접속하기 때문에 매체 언어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외국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 매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국어 교육에 매체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매체에 대한 앎과 매체에 구속되지 않고 그것을 자유롭게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인간이 주체로서 삶을 살게 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문자(인쇄와 출판), 영상, 전파 매체를 거쳐 디지털 매체 환경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는데, 특히 디지털 매체는 문자 텍스트, 소리, 이

2) 매체 교육과 관련하여 '매체', '매채 언어', '미디어' 등의 용어가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언론학 등에서 논의하는 '미디어'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교육적 측면에서 매체 교육을 논의한다는 교과적 특수성을 부각하는 의미에서 국어교육계에서는 일단 '매체 언어'란 용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국어과 교육과정 진술에서도 '매체 언어'란 용어를 선택했다. 본고의 목적은 국어 교육과정에 반영된 매체 관련 교육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므로 교육과정의 '매체 언어'란 용어를 따르고자 한다. 그런데 '매체 언어'란 개념은 '매체'와 '언어'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매체'와 '언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역이 다양해지는데, 본고에서는 '매체 언어'의 개념을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일단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이해, 그리고 소통이란 관점에서 '매체 언어'를 바라고자한 한다. 따라서 '매체 언어'를 '다양한 매체에 나타난 음성 언어나 문자 언어'로 바라보고서 기존 언어의 오용 현상에 관심을 보이던 초기의 접근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서 음성, 문자, 동영상, 이미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의미를 소통하는 방식'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로 이루어진 메시지 혹은 서비스가 하나의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멀티미디어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보와 지식의 생산과 저장 및 소비와 유통, 소통 방식과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에서 야기되는 것은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뿐만 아니라 시각 언어나 영상 언어가 또한 이러한 언어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개인들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이해하며, 타인과 관계를 맺고 생각과 정서를 공유하는데 중요하게 작동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어교육에서 매체를 교육해야 하는 필요성과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흔히 국어교육의 목표는 '국어 사용 능력의 신장'에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국어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규정하는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해설서에서도 국어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창의적 국어 사용 능력의 신장'이라고 진술했다. 그런데 '국어 사용 능력'을 단순히 국어를 사용해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것이라고 기능적으로 정의해서는 국어 교육의 중요한 영역을 간과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언어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여 관계를 맺고, 언어를 통해 사고하며 그 결과 비판적으로 정보와 지식을 수용·생산하고, 언어로서 문제를 해결하며, 언어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활동에 참여하여 다양한 텍스트를 생산해 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어교육에서는 다양한 매체에서 음성, 문자, 동영상, 이미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의미를 소통하는 방식을 국어교육의 내용으로 도입하여, 매체 언어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이해 및 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 매체 언어를 통해 생산된 다양한 매체 텍스트의 수용과 재생산 등을 국어 사용 능력의 일환으로 다루어야 한다.

2.2. 국어교육에서 매체 언어 교육의 도입 양상

교육과정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어교육에서 매체 언어 교육의 도입 양상은 국어과 교육과

정에서 잘 드러난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한 매체 교육에 대한 논의와 다양한 매체의 발달과 변화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전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매체를 국어교과의 교육과정에 의도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다. 그것은 7차 국어 교육과정의 '성격' 항에 잘 드러나 있는데, 국어 교과의 성격을 "한국인의 삶이 배어 있는 국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정보화 사회에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국어 생활을 영위하고, 미래 지향적인 민족의식과 건전한 국민 정서를 함양하며,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기 위한 교과"라고 규정하고 있다. 7차 교육 과정에서는 현대 사회를 정보화 사회로 규정하고 학생들이 정보화 사회에서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이나 '다양한 유형의 자료'로서 신문이나 잡지, 만화, 영화, 텔레비전, 라디오, 컴퓨터 등을 교육 내용의 일부 또는 교육 자료로 도입하고 있다. 특히 국민공통기본교육 과정인 국어 교육과정에서 매체 관련 교육 내용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 즉 언어 사용 영역을 중심으로 1학년에서부터 10학년까지 분포되어 있다. 다음은 7차 국어 교육과정에서 매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7차 국어 교육과정의 매체 관련 교육 내용

학년	영역	교육 내용
1	말하기	(2) 재미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말한다. (기본) 가장 좋아하는 먹을거리,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에서 재미있는 내용을 골라 말한다.
	쓰기	(3) 재미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글을 쓴다. (기본) 동화, 그림, 만화에서 재미있는 내용을 골라 짧은 글을 쓴다.
3	말하기	(2) 화제에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여 말한다. (기본) 텔레비전에서 본 것이나 라디오에서 들은 것 중에서 화제에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여 말한다.
	쓰기	(7) 글을 컴퓨터로 옮겨 쓴다. (기본) 글쇠판을 보면서 자신이 쓴 글을 컴퓨터로 옮겨 쓴다. (심화) 글쇠판을 보지 않고 자신이 쓴 글을 컴퓨터로 옮겨 쓴다.

4	말하기	(2) 주제에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여 말한다. (기본) 잡지나 어린이 신문 등에서 주제에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여 말한다. (4) 말하려는 내용과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이나 몸짓, 어조로 말한다. (심화) 연극이나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배우들이 상황에 따라 말, 표정, 몸짓, 어조를 어떻게 달리 사용하는지 안다.
	쓰기	(2) 주제에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여 글을 쓴다. (기본) 주제에 알맞은 내용을 어린이 신문이나 잡지에서 선정하여 글을 쓴다. (4) 사건이나 행동의 변화가 드러나게 글을 쓴다. (심화) 만화 영화의 내용을 사건이나 행동의 변화가 드러나게 글로 쓴다. (8)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쓴다. (기본) 컴퓨터를 이용하여 방학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을 글로 쓴다. (심화)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족 신문에 실을 만한 내용을 글로 쓴다.
5	듣기	(4) 상대의 어휘 사용이 적절한지 판단하며 듣는다. (심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의 어휘 사용이 상황에 적절하지 못한 경우를 찾고 적절한 어휘로 바꾼다.
	쓰기	(9) 전달 효과를 고려하여 자신의 글을 컴퓨터로 편집한다. (기본) 글자의 모양, 크기, 문단 모양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글을 보기 좋게 컴퓨터로 편집한다. (심화) 그림이나 사진, 표 등을 넣어 자신이 쓴 안내장이나 신문 기사를 보기 좋게 편집한다.
6	듣기	(5) 여러 가지 매체에서 관심 있는 내용을 찾아 듣는 태도를 지닌다. (기본)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프로그램, 강연회 등에서 관심 있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듣는다. (심화) 관심 있는 내용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정보를 교환한다.
	문학	(7) 가치 있는 작품이나 영상 자료 등을 선별하여 읽는 태도를 지닌다. (기본) 가치 있는 작품이나 영상 자료 등을 선별하는 기준을 말한다. (심화) 친구들과 의논하며 가치 있는 작품이나 영상 자료의 목록을 만든다.
7	말하기	(2)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선정해 말한다. (기본) 인터넷, 컴퓨터 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 말한다. (심화)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의 종류와 활용법 등을 안다. (3) 내용을 통일성 있게 조직하여 말한다. (심화) 자신이 말한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여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있는지 검토한다.
	쓰기	(2)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선정해 글을 쓴다. (기본) 인터넷, 컴퓨터 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 글을 쓴다. (심화) •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의 종류와 활용법 등을 조사한다. •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내용을 선정하여 글을 쓴다.

8	말하기	(4) 시청각 보조 자료를 활용하여 말한다. (기본) 효과적인 내용 전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보조 자료와 그 활용법에 대하여 알고, 이를 활용하며 조사, 관찰한 내용을 발표한다. (심화) 시청각 보조 자료를 활용했을 때의 전달 효과에 대해 토의한다.
9	말하기	(1) 말하기가 사회·문화적 과정임을 안다. (기본) 방송에서의 말하기와 일상 대화를 비교하고, 말하기가 사회·문화적 과정임을 설명한다.
	읽기	(6)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찾아 활용하는 습관을 가진다. (기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글의 이해도를 높인다. (심화) 영상 매체나 청각 매체 등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토의한다.
10	듣기	(5) 전달 효과를 평가하며 듣는다. (심화) 연극이나 영화, 비디오를 보고, 등장 인물의 언어적 표현과 반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의 상호 보완성에 대해 토의한다.
	말하기	(3) 내용 조직의 일반 원리에 따라 효과적으로 내용을 조직하여 말한다. (심화) 자신의 말하기 활동을 녹음하거나 녹화하여, 내용 조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한다.
	쓰기	(1) 쓰기가 의사 소통 행위임을 안다. (심화) 신문이나 잡지에서 논쟁이 이어진 예를 찾아보고, 쓰기가 가지는 사회적 역할에 대해 토의한다.

그런데 이 항목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체와 매체 언어의 특성과 그로 인한 소통 방식의 변화와 특성, 정보와 지식의 비판적 이해, 다양한 매체 텍스트의 생산과 이해 등을 교육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교육 내용으로 보건대 7차 국어 교육과정의 매체 관련 교육 내용은, 국어과의 교육 내용 중 어떤 내용을 매체를 활용하여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정도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즉 말을 하거나 글을 쓰기 위해 내용을 찾거나 선정하기 위해서 또는 글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체를 활용하고 있을 뿐이라, 매체 언어 교육의 본질을 교육과정에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7차 국어 교육과정에서 매체 또는 매체 텍스트는 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을 하기 위한 언어적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매체 언어 교육의 핵심에 비교적 가깝다고 여겨지는 내용은 "가치 있는 작품이나 영상 자료 등을 선별하는 기준을 말한

다(6학년)"나 "시청각 보조 자료를 활용했을 때의 전달 효과에 대해 토의한다(8학년)" 정도뿐이다. 이 경우에도 교육 내용의 진술 자체가 모호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교육하라는 것인지 본질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글을 컴퓨터로 옮겨 쓴다(3학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쓴다(4학년)"거나 "전달 효과를 고려하여 자신의 글을 컴퓨터로 편집한다(5학년)"는 컴퓨터라는 새로운 매체에 주목하고 있기는 하나, 다만 이때 컴퓨터는 글쓰기 방식과 글쓰기 유형의 중요한 변화를 반영하기 보다는 펜이나 타이프라이터와 같은 도구적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이러한 한계는 국어교육계 내에서 매체 언어 교육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부족한 데에서 기인했다고 본다. 즉 국어교육에서 규정하는 매체의 의미는 무엇인지, 국어교육에서 매체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국어교육에서 매체를 가르친다고 했을 때 교육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정리 없이, 현실적 당위성과 필요성에서 국어교육에 매체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체 교육이란 때에 따라서는 매체에 대한 교육을 의미하기도 하고, 매체를 활용한 교육이기도 하며, 비판적 사고 교육으로 확장되기도 하며, 언어 활동을 위한 다양한 언어적 자원으로서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이후 국어교육에서 매체 언어 교육의 도입과 매체 언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 결과 많은 논문과 연구 보고서, 저서 등이 발간되었다.

김대행의 '매체언어교육론 서설'(1998)은 매체언어도 본질적으로 해석의 과정이 필요하고 의미를 담고 있는 언어라는 점에서 매체언어의 교육이 국어교육의 몫임을 강조하여 국어교육에서 매체 언어 교육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3]

---

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인 [매체 언어와 국어교육 : 매체 언어의 교수·학습에 관한 연구](최병우·이채연·최지현, 2000)는 이 분야의 본격적인 연구이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 연구소 선정 사업인 '매스미디어와 언어문화교육 연구'(1단계 사업), '하이퍼미디어 시대의 언어문화교육 연구'(2단계 사업)의 결과 출간된 [신문의 언어문화와 미디어교육](우한용 외, 2003), [방송의 언어문화와 미디어교육](김대행 외, 2004), [인터넷 시대의 글쓰기와 표현교육](우한용 외, 2006), [하이퍼미디

학계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도 실제적 목적에서 매체 교육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진 매체 교육에 대한 논의는 초기에는 주로 ICT 교육 내지는 매체 활용 교육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즉 주로 매체를 수업에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수업의 흥미를 불러일으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려는 시도가 많았다. 매체 교육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자발적 교사모임을 중심으로 대안 교과서 형태의 교재 개발과 교사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학계 및 현장의 대부분의 연구는 국어교육 내 매체 교육의 수용 필요성을 이론적·현실적 차원에서 강조하거나, 타 교과의 매체 수용과는 구분되는 국어교육적 수용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등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와 연구의 결과, 국어교육에서 매체 언어 교육을 수용하는 것은 명분과 실리를 갖게 되었으며, 매체 언어 교육 부분은 국어 교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2005년부터 진행된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앞으로 매체 언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체 언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가 계속 한다.

3. '국어' 교육과정의 매체 언어 교육 내용 분석

새로운 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매체 언어 교육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은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시안)'에서 국어 교과의 성격을

어 시대의 이해와 표현 교육](김대행 외, 2006)은 국어교육적 관점과 틀에서 매체 언어 교육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국어교육학계의 주요 학회에서도 국어교육 내 매체 언어 교육의 도입과 가능성을 기획주제로 삼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국어교육학회에서는 2000년 '대중문화 시대의 국어교육'을 학술대회 주제로 삼았고, 국어교육학회에서는 2002년 학술대회에서 '국어교육과 방송문화', '국어교육과 출판문화', '국어교육과 온라인 문화', '국어교육과 대중예술' 등을 기획 주제로 삼아 국어교육의 구도 안에서 매체 교육의 가능성을 논의했다.

규정한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잘 드러난다.

> 국어교과에서는 텍스트의 수용과 생산에 필요한 지식, 기능, 맥락에 관한 내용 요소를 학습하고, 국어를 사용하는 맥락과 목적과 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다매체 시대의 국어 사용 양상과 다양한 매체로 생산된 텍스트의 내용을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사상과 정서를 효과적이고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4]

이후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과정과 개정 시안(현장적합성 검토본)'에서는 "다매체, 디지털 시대의 언어 사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교육 내용 선정(특히 매체 언어의 비판적 수용 강조), 수업에서 다룰 수 있는 '텍스트' 유형의 다양화 제시(예 : 만화, 영화 및 드라마 텍스트)" 를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과정 중 2005년 시행된 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과 개선 요구 조사에서 학생들은 국어 수업의 변화 방향에 대한 질문에 1순위로 "인터넷, 영화 등을 활용하는 수업"(31.7%)을 답했다. 국어 시간에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한 질문에서도 1위로 인터넷에 댓글 달기(16.0%), 2위로 인터넷, TV, 영화에 나온 내용 읽기(보기)(14.2%)를 들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는데, 학교에서 인터넷, TV, 영화 등을 바르게 수용(이해)하는 국어 교육은 어느 정도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96.0%가 필요하다고 응답(65.3% 필요하다, 32.5% 매우 필요하다)했다. 그러나 미디어 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능력으로는 내용 활용(42.4)과 내용 이해(41.2) 내용 비판(15.0), 제작

---

4) 그러나 2007년 초 확정되어 고시된 국어과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의 성격 항에서는 이러한 기술은 사라지고 다음의 진술로 대체된다.
"국어 교과에서 학습자는 국어 활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담화 또는 글의 내용을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개정(시안)에 비해 확정된 국어과 교육과정은, 국어 교과의 '성격'을 기술하면서 매체 언어 교육과 관련한 진술이 빠져 있어 매체 언어 교육 측면에서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할 수 있다.

(1.3) 순으로 답했고, 국어 수업의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도 발표 토론 수업(50.7), 미디어 활용 수업(16.6) 순으로 답한 것으로 보아 학부모들은 매체 언어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학계의 논의나 학생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국어 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내용에 대한 학부모의 응답 결과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학생들과 달리 11위가 인터넷, TV, 영화에 나온 내용 읽기(보기)(2.5%), 17위가 인터넷에 댓글 달기(0.7%)였다. 반면에 토의 토론하기가 1위, 정확한 문장 구사하기가 2위, 발표하기(매체 활용 포함)가 3위였다.

매체 교육 내용의 바람직한 수용 방식에 대해서는 교수와 교사의 응답 비율이 달랐다. 교사들은 국어교과의 내용 영역에 하나로 매체 영역 독립 신설에 40.9%, 국어 교과의 내용 영역에 매체 교육 내용 분산에 46.3%로 답한 반면에, 교수들은 전자의 안에 22.4%, 후자 안에 60.5%가 답했다.

학계의 연구와 논의, 이러한 교육 관계자의 의견과 수요자의 요구 조사 등을 보건대, 국어교육에서 매체를 교육의 내용으로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어과 교육과정에 매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 교육과정이 매체 언어 교육 영역을 독립 영역으로 신설하지 않고 국어교과의 내용 영역에 분산했지만, 앞으로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국어교과의 영역 구분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중에 실시된 영역 구분과 관련된 1,2차 쟁점 토론회의 결과에서도 이는 잘 드러난다. 물론 영역 논의의 주 쟁점은 언어 활동 중심의 4영역 체제와 현 6영역 체제의 유지에 관한 논의였지만, '보기·만들기', '보기와 나타내기', '읽·보기' 등의 영역 설정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보아 매체 영역의 설정 또한 앞으로 국어 교육과정의 영역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 사항이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여러 차례의 걸친 쟁점 토론회와 공청회의 결과 국어 교육과정은 현재의 6영역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개발되었고, 매체 언어 교육 부분은 6영역에 걸쳐 분산되었으며 4.방법 항에서 "매체 관련 '내용 요소'를 지도

할 때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과의 통합을 고려하여 지도한다"고 진술되었다.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보고서에서는 매체 언어 교육 내용의 제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7) 매체
>
> 첫째, 학년별 성취 기준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의 다섯 영역에 골고루 배치하였다. 1~3학년은 한 학년에 하나의 성취 기준, 4~6학년은 한 학년에 두 개의 성취 기준, 7~10학년은 한 학년에 세 개의 성취 기준이 매체 특성과 언어의 학습을 위해 고려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
> 둘째, 두체적인 목적, 텍스트, 학습 요소를 제시하여 주목해야 할 학습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토대 아래 매체 언어 교육의 내용은, 교육과정 개정(시안)과 현장적합성 검토본을 거쳐 확정 고시된 국어과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중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인 '국어' 과목에서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참고 : 〈국어과 교육과정〉 중 국민공통기본과정인 국어 과목의 교육과정에 반영된 매체 언어 관련 내용[5]

학년	영역	성취기준	내용 요소의 예
1	듣기	(3) 그림 동화 속의 그림을 이야기와 관련지어 이해한다.	•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과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하여 말하기 • 그림에 나타난 주요 인물, 대상, 사건 파악하기 • 그림에 나타난 인물의 몸짓과 표정을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하기
3	듣기	(3) 전화 대화를 하면서 상대의 말을 예의 바르게 듣는다.	• 전화 대화의 특성 이해하기 •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듣기 • 상대에 대해 예의를 갖추어 응대하기

5) "(1)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 있게 설명문을 쓴다(7학년 쓰기)"와 같이 매체를 언어 활동을 하기 위한 자료 차원으로 이용하는 내용의 성취 기준은 제외했다. 이 성취기준에서 매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내용의 핵심은 통일성이란 개념과 설명문의 구성에 있기 때문이다.

3	듣기	(4) 애니메이션을 보고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이해한다.	• 애니메이션의 특성 이해하기 • 느낌을 표현하는 말과 행동 찾기 • 말의 빠르기, 높낮이, 강약 인식하기 • 인물의 인상적인 몸짓 비교하기
	말하기	(3) 전화 예절을 지키면서 대화를 한다.	• 전화 대화의 특성 이해하기 • 전화 대화 시 지켜야 할 예절 알기 • 상황에 따라 예절을 지키면서 전화로 대화하기
	읽기	(4)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보고 인물의 성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안다.	• 인물의 성격을 표현하는 방식 이해하기 •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 찾기 • 인물의 성격이 시각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찾아 언어로 바꾸어 표현하기
4	쓰기	(4) 글과 그림이 잘 어울리게 그림책을 만든다.	• 읽는 이를 고려하여 내용 생성하기 • 글과 그림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하여 표현하기 • 글과 그림이 서로 어울리도록 구성하기 • 완성된 그림책을 발표하고 전시하기
5	듣기	(1) 발표를 듣고 매체 활용의 효과를 판단한다.	• 발표의 목적과 내용 파악하기 • 매체의 특성과 기능 이해하기 • 매체 활용의 효율성 판단하기
		(3) 온라인 대화를 일상 대화와 비교하여 이해한다.	• 온라인 대화의 특성 이해하기 • 온라인 대화와 일상 대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하기 • 바람직한 온라인 대화 태도 형성하기
	말하기	(1) 대상의 특성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여 발표한다.	• 대상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내용 선정하기 •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는 적절한 표현 선정하기 • 시청각 보조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읽기	(2) 광고에 나타난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한다.	• 광고의 표현 특성 이해하기 • 광고를 보고 내용과 의도 파악하기 • 광고들을 비교하여 내용의 신뢰성 평가하기 • 광고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 기르기
	쓰기	(1)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에 대해 보도하는 기사문을 쓴다.	• 기사문의 특성 이해하기 • 중요한 사건을 선정하여 조사하기 • 조사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쓰기 • 읽는 이를 고려하여 그림, 사진, 도표 등을 활용하기
	문법	(4) 말하는 이, 듣는 이, 상황, 매체 등에 따라 언어 사용 방식이 달라짐을 안다.	• 의사소통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 알기 • 말하는 이, 듣는 이, 상황, 매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의사소통하는 방법 이해하기 • 의사소통 상황과 언어 사용 방식의 관계 파악하기

6	듣기	(1) 뉴스를 듣고 정보에 관점이 반영됨을 안다.	• 뉴스의 담화 구조 이해하기 • 사건의 개요 파악하기 • 서로 다른 시각이 반영된 뉴스 비교하기 • 뉴스의 사회적 기능 이해하기
		(4) 드라마를 보거나 듣고 이어질 내용을 예측한다.	• 드라마의 특성 이해하기 • 사건의 전개 과정 파악하기 • 앞부분을 토대로 뒷부분 내용 예측하기
7	듣기	(2) 광고를 보거나 듣고 설득의 전략을 파악한다.	• 광고의 특성 이해하기 • 언어 표현이나 이미지 구성 방식 파악하기 • 아이디어 생성 과정 및 기획 의도 추론하기 • 광고의 신뢰성과 타당성 판단하며 듣기
	말하기	(3) 인터넷 게시판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인터넷 토론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 인터넷 매체의 상호작용적 특성 이해하기 • 게시판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 언어 예절, 인권, 초상권 등을 고려하기
	읽기	(5)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 영화의 매체 특성 이해하기 • 영화의 서사 구조 파악하기 • 주요 인물의 성격 및 인물 형상화 방식 파악하기 • 영화에 나타난 인물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에 대해 토론하기
	문법	(1) 다양한 매체에 나타난 언어 사용 방식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 언어의 기능과 특성 이해하기 • 다양한 매체에 나타난 언어 사용 방식 비교하기 •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사용하기
	문학	(4) 시어와 일상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랫말을 쓴다.	• 시어와 일상어의 특징 이해하기 • 노래에서 음악적 효과가 나타나는 표현을 찾아 운율을 살려 낭송하기 • 시적 표현과 운율의 효과를 살려 노랫말 쓰기
8	듣기	(4)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고 진행자의 말하기 특성과 효과를 평가한다.	• 라디오 프로그램의 특성 이해하기 • 진행자의 말하기 전략 분석하기 • 진행자의 반언어적 표현 효과 평가하기 • 다른 매체 프로그램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과 비교하기
	말하기	(1) 공식적인 상황에서 매체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발표한다.	• 발표할 내용을 시각적 정보와 글 정보로 구분하기 • 발표 상황과 주제에 적합한 정보와 자료 제시하기 • 청중의 흥미와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발표하기

8	말하기	(4) 드라마의 인물이 되어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 인물에 어울리는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 찾기 • 드라마의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심리 이해하기 • 인물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어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 사용하기
	읽기	(5) 다양한 풍자물의 매체 특성과 그 효과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 매체 특성과 풍자물의 표현 방식 이해하기 • 생산자와 수용자가 공유하는 사회적 통념 파악하기 • 풍자물에 담긴 현실 비판의 내용과 비판 방식에 대해 평가하기 • 풍자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 토의하기
	쓰기	(2) 글을 쓰는 목적에 맞게 정보를 재구성하여 기사문을 작성한다.	• 기사를 쓰는 목적에 맞게 자료나 정보 수집하기 • 글을 쓰는 목적에 맞게 정보 재구성하기 • 독자에 따라 내용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기
		(4) 목적, 독자, 매체가 쓰기의 내용과 형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글을 쓴다.	• 온라인 대화,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의 매체적 특성 이해하기 • 매체의 특성이 쓰기의 내용과 형식에 미치는 영향 이해하기 •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식의 글 쓰기 • 속어, 비어, 성차별적 언어 사용 등 부적절한 표현 고쳐쓰기
9	듣기	(1) 시사 문제에 대한 심층 보도를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 심층 보도의 특성 이해하기 • 심층 보도의 기획 의도 파악하기 • 심층 보도의 타당성, 신뢰성 판단하기
		(4) 영화나 연극을 보고 자신의 경험이나 시대적 상황과 관련짓는다.	• 영화나 연극의 특성 이해하기 • 영화나 연극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요소 파악하기 • 영화나 연극의 내용을 개인적 경험과 관련짓기 • 영화나 연극의 내용을 시대적 상황과 관련짓기
	읽기	(5) 만화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함축된 의미를 해석한다.	• 만화의 매체 특성과 표현 방식을 글과 비교하여 이해하기 • 그린이의 의도와 관점 파악하기 • 만화 내용의 함축된 의미 해석하기
	쓰기	(1) 독자의 요구와 관심사를 고려하여 학교나 지역 사회를 홍보하는 글을 쓴다.	• 홍보하는 글의 구성 방법과 표현의 특징 이해하기 • 조사, 면담 등을 통하여 정보 수집하기 • 부연 설명, 인용을 사용하여 내용 구체화하기 • 홍보 대상에 대한 독자의 요구와 매체 특성 고려하기
		(5) 영상 언어의 특성을 살려 영상으로 이야기를 구성한다.	• 영상 언어의 특성 이해하기 • 일상적 경험이나 사회적 사건을 바탕으로 이야기 구성하기 • 관객이나 시청자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여 영상물 만들기

10	듣기	(1) 강의나 발표를 듣고 목적에 따라 내용을 재구성한다.	• 내용의 흐름 파악하기 •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 선별하기 • 듣는 목적에 맞게 내용 재구성하기 • 시청각 보조 자료의 효율성 판단하기
	말하기	(1)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자신을 소개한다.	• 인터넷 매체를 통해 자신을 소개할 때 필요한 자료 이해하기 • 글, 사진, 그림, 동영상으로 자신을 표현하거나 설명하기 • 청자의 관심을 고려하여 자신의 홈페이지 내용을 효과적으로 소개하기
		(4)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취재하여 보도한다.	• 방송 보도의 특성 이해하기 • 문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취재 내용 선정하기 • 문제가 잘 드러나도록 보도 내용 편집하기 • 방송의 특성을 살려 보도물 제작하기
	읽기	(4) 면담 기사를 읽고 질문자의 질문 의도, 질문 전략, 질문 태도 등을 평가한다.	• 면담 기사의 특성 이해하기 • 면담 기사에 대해 정보의 신뢰성과 의의 평가하기 • 대상 인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 면담 기사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준 및 항목 설정하기
		(5) 인기 도서를 읽고 책의 가치와 인기를 얻게 된 원인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책들의 특성과 분야 파악하기 •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게 된 원인을 책의 내용에서 추론하기 • 신문, 방송 등 책의 인기에 작용한 여러 요인을 파악하기 • 인기 도서에 반영된 당대의 문화적 기호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쓰기	(2) 그림이나 사진, 그래프나 도표 등의 자료를 해석하는 글을 쓴다.	•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과 유의점 이해하기 •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그림이나 사진 등을 해석하기 • 해석하는 글을 쓰는 목적과 독자 고려하기 • 해석한 내용을 논리적 순서로 조직하여 표현하기

국어 교육과정에서 매체 또는 다양한 매체 텍스트가 도입된 성취기준들을 분석해보면, 7차 국어 교육과정과 비교해서 매체 언어 교육의 양이 절대적으로 늘어났으며 내용의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매체 교육과 관련된 성취기준의 내용은, 매체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위한 언어적 자원으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체의 특성에 따른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에 교육의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성취기준을 학년별, 영역별로 분류해 보면 특정 영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문학' 영역보다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언어 사용 기능 영역을 중심으로 도입되었으며, 언어 사용 기능 영역 중에서는 '듣기'와 '말하기' 영역 즉 음성 언어 영역에 상대적으로 매체 언어 교육의 내용이 더 많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6] 국어교육에서 매체 언어 교육 관련 연구와 논의를 살펴보면, 문학 교육에서 영상 매체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했다. 문학 교육에 영상 매체를 활용하거나 포함하자는 논의들과 문화교육의 관점에서 대중문화를 도입하고 대중 문화의 하위 요소인 대중 매체의 교육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문학교육적 논의가 활발했음에 비해서, 새 국어 교육과정에서 매체 언어 교육의 '문학' 영역 분담량은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내용의 구성이 '텍스트' 중심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문학 영역은 이미 '시, 소설, 극, 수필·비평'이란 전통적으로 내려온 고정된 장르가 있다. 이에 비해 언어 사용 기능 영역에서 성취기준 구성의 중심인 '텍스트'는 언어 사용의 목적에 따라 정보들 전달하는 말/글, 설득하는 말/글, 사회적 상호작용의 말/글, 정서 표현의 말/글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장르의 경계가 비교적 느슨하기 때문에 매체 교육의 내용을 담기가 수월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매체 언어 교육의 학년별 분포에서 2학년은 매체 언어 교육부분이 없으며, 4학년과 6학년은 다른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체 언어 교육 내용이 적다. 교육 내용의 배열에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은 확대되고 심화되어야 하는데, 4학년과 6학년의 매체 언어 교육 내용은 이것에 어긋난다.

---

6)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1~8학년 대상의 자국어 교과 명칭은 '언어(Language)'로서, 쓰기(Writing), 읽기(Reading), 음성 언어와 시각적 의사소통(Oral and Visual Communication)의 세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음성 언어와 시각적 의사소통' 영역은 다양한 매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말하기·듣기와 같은 구어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시각적 보조 자료의 활용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그림, 만화, 각종 디자인 등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생산해 낼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우리말교육연구소 엮음, 2004).

〈학년별, 영역별 매체 언어 교육 반영 표〉

학년 \ 영역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1						o
2						
3	o	o	o			
4				o		
5	oo	o	o	o	o	
6	oo					
7	o	o	o		o	o
8	o	oo	o	oo		
9	oo		o	o		
10	o	oo	oo	o		

국어 교육과정에서 매체에 대한 교육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통합하여 다양한 매체 텍스트를 제시하여 구성한 것은 구체적 언어 상황과 맥락에서 매체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수·학습의 실제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매체 언어 교육의 내용으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매체 또는 매체 텍스트는 주로 만화와 애니메이션,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광고, 뉴스, 기사 등이다. 매체의 범주를 크게 인쇄 매체와 시청각 영상 매체와 인터넷 매체로 범주화했을 때, 국어 교육과정의 매체 언어 교육 내용은 인터넷 매체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현대 생활에서 인터넷의 기능 범위와 영향력을 생각할 때, 또 인터넷 매체가 음성 매체, 문자 매체, 영상 매체를 아울러 복합적 매체 소통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인터넷 매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애니메이션, 영화, 광고에 대한 내용은 듣기와 읽기 영역에서 다 다루어지고 있는데, 성취 기준과 내용 요소를 살펴보았을 때, 영역별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온라인 대화'는 구어적 양상과 문어적 양상을 다 갖고 있기는 하지만, '온라인 대화'를 듣기 영역과 쓰기에 배치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특정 매체나 매체 텍스트의 이해에는 듣기와 보기,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보기, 읽기와 쓰기 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이를 특정 영역에 배치함으로써 생긴 문제라고 본다. 물론 이는 교육과정

에서 교육의 내용 요소를 분절적, 분석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교재를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각각의 매체 텍스트를 각 영역별로 제시함으로써 매체 텍스트를 비교하거나 매체를 메타적 관점에서 교육하는 내용을 제시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국어 교육 과정에서 실제로 그러한 내용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7학년 문법 영역에서 제시된 "(1) 다양한 매체에 나타난 언어 사용 방식의 차이점을 파악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내용 요소의 예를 살펴 보건대 이것의 내용은 '언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예를 들면, 뉴스(기사)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매체에서 비교해 보거나, 광고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매체에서 비교해 보는 내용은 매체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더 유용하다. 정구향(2002)에서 제시했듯이, 매체 언어 교육에서는 매체별 언어의 차이와 그 전달 효과에 대한 검증과 그에 대한 교육이 수행되어야 한다. 동일한 텍스트 유형에 대한 매체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분석은 학생들이 매체의 특성과 기능을 이해하고의 매체의 발달과 변화, 매체에 의한 소통을 파악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년별, 텍스트 유형별 매체 텍스트 반영 표〉

학년 / 텍스트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정보 전달					• 발표(듣기 -매체활용) • 발표(말하기 -매체활용) • 기사문(쓰기)	• 뉴스(듣기)
설득					• 광고(읽기)	
사회적 상호 작용			• 전화대화 (듣기) • 전화대화 (말하기)		• 온라인 대화 (듣기)	
정서 표현	• 그림 동화 (문학)		• 애니메이션 (듣기) • 만화나 애니메이션 (읽기)	• 그림책(쓰기)		• 드라마 (듣기)

학년 / 텍스트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정보 전달		• 발표(말하기-매체 활용) • 기사문(쓰기)	• 보도(듣기) • 홍보하는 글(쓰기)	• 강의, 발표, 보고(듣기) • 인터넷(말하기) • 방송 보도(말하기) • 인터뷰(읽기) • 베스트셀러(읽기)
설득	• 광고(듣기)	• 사설, 칼럼(읽기)		• 그림, 사진, 그래프, 도표 (쓰기-매체 활용)
사회적 상호 작용	• 인터넷 토론(말하기)	• 온라인대화,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쓰기)		
정서 표현	• 영화(읽기) • 노래(문학)	• 라디오 프로그램 (듣기) • 드라마(말하기) • 풍자물(읽기)	• 영화/연극(듣기) • 만화(읽기) • 영상물(쓰기)	

4. 매체 언어 교육의 도입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매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사회와 소통방식과 문화의 변화, 교육 수요자의 요구 등으로 인해 새로운 국어과 교육과정은 매체에 대한 교육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국어과 교육과정에 매체를 도입하는데 있어 이론적으로 정리되지 못하고 넘어간 문제가 몇 가지 있다. 국어 교과라는 교과적 특수성 안에서 매체를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4.1. 용어와 개념 문제

1990년대 중·후반 이후 국어교육학계에서 매체 교육 도입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용어와 개념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미디어', '매체', '매체 언어'라는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언론학 등에서는 '미디어 교육'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나 국어교육학에서는 '매체 교육'이나 '매체 언어 교육'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국어교과에서 하는 매체 교육이라는 점을 선명하게 부각하기 위해 매체 교육 도입 논의 초기에 선언된 '매체 언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학자들이 많으며 교육과정에서도 '매체 언어'라는 용어가 선택되었다. 그러나 '매체'나 '매체 언어'에 대한 개념 역은 이를 논하는 학자들의 학문적 배경과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 학자들에 따라 신문, 영화,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 매체나 인터넷을 '매체'로 정의하기도 하고 매체를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음성언어나 문자 언어도 매체로 보기도 한다. 매체 언어의 개념 역 역시 매체와 언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양하다. 좁게는 다양한 매체에 구현된 음성 언어나 문자 언어로 보기도 하고, 넓게는 매체를 자체를 언어로 보거나 다양한 매체의 의미 작용 방식에 주목하기도 한다.

매체 교육의 개념 범위에 대한 논의 역시 다양했다. 매체 교육의 범위를 '매체에 대한 교육'과 '매체를 통한 교육'과 '매체 활용 교육'으로 나누어 논의하면서, 매체 교육의 본질은 '매체에 대한 교육'에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매체 교육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 맥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즉 구체적 매체 텍스트를 이해하고 생산하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각 매체적의 특성과 기능, 매체 활용 능력, 매체를 통한 특정 내용의 교육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용어와 개념의 문제는 국어 교과에서 매체를 가르치는 것을 통해 학생들에게 어떤 능력을 길러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지 즉 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잠정적으로 국어 교과의 교과적 특성을 고려한 매체 교육의 지향을 진술하자면, 국어 교과에서 수행해야 하는 매체에 대한 교육은 학생들이 주체로서 매체를 통해 소통하고 정보와 지식을 생산, 수용, 저장, 유통하고, 다양한 매체 텍스트를 생산하고 수용하여 향유하도록 해야 한다.

4.2. '매체' 영역 설정의 문제

새 국어 교육과정에서는 이전 교육과정의 영역 체제를 유지하며 매체에 대한 교육 내용을 독립된 영역으로 설정하지 않고 기존의 여섯 영역에 분산하는 것을 틀로 삼았다. 교육과정 개정 논의 중 영역 설정 문제에서 핵심은 아니었지만 '보기 · 만들기, 보기와 나타내기, 읽 · 보기'와 같이 매체 영역의 설정에 대한 주장이 있었다.

외국의 자국어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매체' 영역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7] 예를 들어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자국어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단계에 해당하는 자국어 교과 명칭은 '언어(Language)'로서, 쓰기(Writing), 읽기(Reading), 음성 언어와 시각적 의사소통(Oral and Visual Communication)의 세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9~10학년 대상 영어 과목은 문학과 읽기(Literature Studies and Reading), 쓰기(Writing), 언어(Language), 매체(Media studies)로 구분되어 있다. 호주 연방 자국어 교육과정에서는 영역을 '말하기와 듣기' 읽기와 보기(viewing), 쓰기로 나누고 있다.

외국의 자국어 교육의 경우처럼 매체 관련 교육 내용을 독립된 영역으로 설정할 것인가, 기존 국어 교과의 영역에 녹여 넣을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의 선택은 국어교과의 영역 구분에 대한 충분한 학문적, 이론적 논의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기존의 여섯 영역에 통합하여 분산 배치한 새 교육과정의 몇 가지 문제를 논의했지만, 매체를 독립된 영역으로 설정했을 때의 야기되는 문제 또한 있을 것이다. 만약 현재의 여섯 영역에 '매체' 영역을 하나 더 설정한다면, 국어 교과의 영역 설정은 체계화에서 더욱 멀어질 것이다.

매체 교육의 내용을 독립적 영역으로 설정했을 때의 장단점과 다른 영역과 통합적으로 설정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 한다.

---

7) 우리말교육연구소(2004)의 외국의 국어 교육과정1, 외국의 국어 교육과정 2를 참고할 것

4.3. 매체 언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 문제

어떤 매체와 매체 텍스트를 교육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매체 언어 교육의 범주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매체 언어 교육 논의에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교육 내용의 선정과 관련된 것으로서 매체 언어 교육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부분이다. 문학의 경우 교육을 위한 텍스트를 선정할 때, 전통적인 장르도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으며 정수의 지식, 즉 높은 문학성으로 평가받는 '정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그러나 매체 언어 교육의 경우 형식적으로 안정된 장르나 정수의 지식이 부족하다. 매체 언어에 의해 생산되는 텍스트나 장르 또한 급격한 발전과 변화를 보이고 있어[8] 매체 언어 교육의 내용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소통 방식이 등장하고 텍스트의 구현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어떤 관점에서 조망하고 교육에서 받아들여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매체 언어 교육에서 핵심은 다양한 매체와 매체 텍스트의 소개나 백화점식 나열이 아니라 매체, 매체에 의한 소통방식과 매체 문화에 대한 성찰이라고 할 수 있다. 매체 언어 교육에서 지식에 대한 관점 또한 변화를 요구받는데, 기존의 절대적, 객관적 지식 개념이 아니라 실용적 지식, 구성적 지식, 적층적 지식의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다.

Buckingham(2004)은 미디어 교육의 방법으로 '텍스트 분석, 맥락 분석, 사례 연구, 변형, 시뮬레이션, 제작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최근까지 자발적, 산발적으로 학교나 학교 외에서 이루어져 왔던 매체에 대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주로 텍스트 분석을 통한 것이었다. 즉 영상 매체를 중심으로 비판적 시청 기술이나 각종 매체의 언어 오용에 대

8) 일반 편지와 전자 우편, 전자 우편과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로의 급격한 이행과 기능 분담을 생각해 보라. 또한 채팅과 메신저의 변화 양상과, 개인 홈페이지 구성의 변화 양상을 고려해 보면 매체 언어 교육의 내용 설정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3~4년 사이의 싸이월드와 블로그의 급속한 확산되었고, 최근에는 인터넷 메모를 하고 이를 공유하는 웹 기반 서비스와 한줄 블로그가 등장하고 있다.

한 교육이 많았다.

매체 언어 교육은 학생들이 매체를 통해 다양한 방식의 소통에 참여하고 매체를 통해 주체적 삶의 형성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렇다면 매체 교육은 매체 텍스트의 분석 즉 수용과 비판에서 더 나아가 매체 텍스트의 향유와 제작에까지 아울러야 하며, 자기 성찰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최근 블로그와 블룩,[9] UCC 열풍은 사람들은 매체를 통해 자기를 표현하고 다양한 소통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매체 텍스트를 생산, 제작을 요구할 수 있는가이다. 저학년들도 충분히 매체 텍스트를 비판하고 즐기고 생산할 수 있으며, 매체를 통해 소통하고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매체 텍스트의 표현 및 제작은 매체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 이외에 실제적으로 매체 활용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매체 활용 기술의 문제는 다시 국어교육에서 매체 교육을 도입하는 범위의 문제와 연결된다. 영화 제작 기술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는 국어 교육의 내용으로 포함하기 어렵다고 여기는 국어 교과적 경계선이 작용하기 있기 때문에 제작 교육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4.4. 국민공통기본 과정과 심화과목의 '매체 언어'의 관계 문제

"'매체 언어'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에서 담고 있는 매체 언어 관련 내용을 심화 발전시킨 과목"이라고 매체 언어 교육과정의 '성격' 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공통기본 과정에서 매체 언어 교육의 내용과 수준을 정할 때 '매체 언어' 과목과의 관계와 과목별 역할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어 교육과정은 필수 과목으로서 대학민국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이수해야 할 국민공통기본과정이다. 이것은 1~10학년

9) 블룩(Blook)은 블로그를 통한 책의 출판, 즉 블로그의 내용을 묶어 출판한 책을 지시하는 신조어이다.

동안 국어교육을 받고 나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기본적인 국어 사용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체적으로서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고 생산하며 타인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어' 과목과 '매체' 언어 과목에서 매체 언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기본적으로 같아야 한다고 본다. 매체 언어 교육의 내용과 범위를 만약 '감상과 체험, 비판적 독해, 제작과 표현'으로 정했다면 비중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국민공통기본 과정과 선택 과정에서 다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매체 언어' 과목은 선택 과목이므로 모든 학생들이 배우지는 않기 때문에, 국민공통기본 과정에 매체 언어 교육에서 기본이면서 핵심적인 내용은 다 포함시켜야 된다고 본다. 심화과목으로서의 차별성은 내용 범주에 따른 비중의 차이나 매체 텍스트의 수준과 매체 텍스트가 담고 있는 주제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4.5. 매체 언어 교육의 준비 문제

교육 내적인 논리보다는 교육 외적인 문제가 교육 현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매체 언어 교육이 제대로 국어 교육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매체 언어 교육에 대한 이론적 연구도 중요하지만, 매체 언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새 교육과정에서 국어 교육에 본격적으로 매체 언어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를 교육할 인적, 물적 자원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다시 교원양성기관의 준비 즉, 사범대 및 교대의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에서 매체 언어 교육을 실시하기에 충분한가와 학교를 비롯한 가정 및 사회의 물리적, 제도적 환경은 매체 언어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가의 두 가지 문제로 나눌 수 있다.

몇몇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에서는 전공이나 교양 과정에서 매체 관련 과목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범대와 교대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교사 교육의 한계는 곧 매체 언어 교육의 한계가 되는데, 매체를 도구로만 접근하거나, 정적인 지식으로서

만 접근하거나 단순한 활동 즉 1회의 흥밋거리로 접근할 우려가 있다. 매체 언어 교육을 둘러싼 학교를 비롯한 가정 및 사회의 물리적 환경 또한 매체 교육의 한계가 될 수 있다. 교육은 지역 및 계층에 따른 정보 격차(디지털 디바이드)를 해소시켜야 하는데, 학교를 비롯한 가정 및 사회적 물리적 제도적 환경의 준비의 미비는 오히려 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

5. 결론

새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국민공통기본과정인 '국어' 과목에 도입된 매체 언어 교육 내용을 분석하고, 매체 언어 교육의 도입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해 보았다. 이 문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국어교육에서 매체를 논하는 것은 국어교육의 외연을 확장하자거나 새로운 교육 영역을 선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것은 국어교육을 왜 해야 하는가, 국어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어떤 능력을 길러 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에서 출발해야 된다. 국어교육에서 길러 주고자 하는 것은 언어를 통한 사고와 소통 능력이며, 이것은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의 이해와 생산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술의 발전으로 매체는 계속 변화 발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매체는 새로운 소통방식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통하고 관계를 맺으며 지식과 정보를 수용하고 생산하며, 저장, 유통시키는 방식에 대한 교육은 국어 교과가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국어 교과에서 매체 언어에 대한 교육의 내용은 영역별, 학년별로 다양한 매체를 백화점 식으로 나열하여 소개하거나 경험해 보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또한 인터넷 토론을 한 번 해 본다거나 디지털 영상기기로 뉴스나 영상물을 제작해 보는 등의 수행 위주의 교육이나 매체 활용 기술 습득의 교육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국어 교육과정의 매체 언어 교육 내용은, 학생들이 다양한 매체 경험

을 통해서 그러한 매체와 관련된 소통 행위의 의미와 문화적 가치까지 깨닫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07. 2. 13. 투고되었으며, 2007. 3. 11. 심사가 시작되어 2007. 3. 30.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권성호 · 서윤경(2005), 교육공학적 관점에 따른 미디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울아카데미.

김기태 외(2006), 미디어교육과 교과과정, 커뮤니케이션북스.

김대행(1998), 매체언어교육론 서설, 국어교육 제97호,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김대행 외(2004), 방송의 언어문화와 미디어 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문혜성 외 8인 공저(2006), 미디어교육과 교수법, 커뮤니케이션북스.

박동숙 · 전경란(2005), 디지털/미디어/문화, 한나래.

박영목(2005), 21세기의 새로운 문식성 사회에 대비한 작문교육의 방향과 내용, 국어교육 117집, 한국어교육학회, 439~467.

이정복 · 양명희 · 박호관(2006), 인터넷 통신 언어와 청소년 언어 문화, 한국문화사.

이정덕(2004), 21세기 한국의 문화혁명, 살림.

우리말교육연구소 엮음(2004), 외국의 국어 교육과정2－캐나다, 미국, 호주의 교육과정, 나라말.

우리말교육연구소 엮음(2004), 외국의 국어 교육과정1－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의 교육과정, 나라말

우한용 외(2006), 인터넷 시대의 글쓰기와 표현 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정구향(2002), 매체언어 교육의 내용 범주와 수용 양상 연구, 새국어교육 63집, 한국국어교육학회.

정현선(2005), '언어, 텍스트, 매체, 문화' 범주와 '복합문식성' 개념을 통한 미디어 교육의 국어교육적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제 28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정현선(2004a), 동화와 애니메이션 '보기'를 중심으로 한 멀티리터러시의 국어교육적 고찰, 국어교육 제 114호,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정현선(2004b), 디지털 리터러시의 국어교육적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제 21집. 국어교육학회.

최민재(2006), 한국의 미디어교육현황, 한국언론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2006.7), 2006년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2006.6), 웹 2.0시대의 네티즌 인터넷 이용 현황.

Buckingham, D.(2004), 미디어교육,기선정 · 김아미 역, Jnbook.

<자료>

이인제 외(2005.12), 국어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 CRC 2005-3, 한국교

육과정평가원.
이인재 외(2005.12),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연구보고 CRC 2005-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6.4),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과정과 개정 시안(현장적합성 검토본).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별책 05], 국어과 교육과정.

<초록>

'국어' 교육과정의 매체 언어 교육 내용

김정자

새 국어과 교육과정의 국민공통기본과정인 '국어' 과목에 도입된 매체 언어 교육 내용을 분석하고, 매체 언어 교육의 도입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해 보았다.

새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인 국어 교육과정은 매체에 대한 교육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통합하여 다양한 매체 텍스트를 제시하여 구성하였다. 이는 구체적 언어 상황과 맥락에서 매체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수·학습의 실제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7차 국어 교육과정과 비교해서 매체 언어 교육의 양이 절대적으로 늘어났으며, 매체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위한 언어적 자원으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체의 특성에 따른 매체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에 교육의 초점을 두고 있어 매체 교육의 수준 또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매체 언어 교육의 내용을 학년별, 영역별로 분류해 보면 특정 영역에 편중되어 언어 사용 기능 영역 중 '듣기/말하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학년별 분포 역시 체계성을 띠지 않고 있다. 매체의 범주를 크게 인쇄 매체와 시청각 영상 매체와 인터넷 매체로 범주화했을 때, 국어 교육과정의 매체 언어 교육 내용은 인터넷 매체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매체 텍스트를 비교하거나 매체를 메타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내용 또한 부족하다.

국어 교육과정에 매체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매체 교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그것은 '매체'와 '매체 언어' 용어의 개념 규정, 매체 교육의 영역 설정, 매체 교육의 내용과 방법, 심화과목인 '매체언어'와 관계 설정 및 역할 분담, 매체 교육을 위한 준비와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다. 이 문제들은 국어 교과에서 교과적 특수성 안에서 매체를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연구와 논의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

【핵심어】 국어 교육과정, 매체 교육 매체, 매체 언어, 매체 텍스트

<Abstract>

A Review of Media Education in New Curriculum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Kim, Jeong-ja

The fundamental purpos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to make students to cultivate the abilities for understanding and producing various types of text and the abilities for communicating with others and thinking. Media education aims to develop one's abilities of understanding and producing media text and to develop one's abilities of communication and thinking ultimately. Considering the similarities between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media education, it is appropriate and efficient to introduce contents of media education in the curriculum for Korean Language.

This study is to review of media Education in new curriculum for Korean language and to give rise to issues about introducing media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contents of media education in new curriculum is proposed the form of the achievement standard and included in the six domains ;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grammar, literature. In the 7th curriculum the contents related with media are usually proposed recourses for language activities. The contents of media education in new curriculum are focused on the understanding and producing media text and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media language.

But reviewing the achievement standard related with media education, some problems arise. The contents for media education are proposed mostly in the domain of listening and speaking. The contents

about online media is not sufficient relatively in comparison to print and visual media. And it is deficient to compare with different media texts and approach media from a view of meta-media in new curriculum for Korean language.

To introduce media education systematically in the curriculum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some issues rising in media education must be discussed and reserved. These are Some issues rising in introducing media education in the curriculum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establishment of the domain for media education, the contents and instruction method of media education, relation with 'media language' as an elective course, and the support of manpower and media environment.

【Key words】 curriculum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media education, media, media language, media text

【토론문】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의 매체 언어 교육 내용〉에 대한 토론문

한명숙(공주교육대학교)

컴퓨터와의 인연 이야기까지 더하여 재미있게 전개된 논문을 흥미롭게 읽었다. 매체 언어 교육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통계 자료도 유익했고,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들어간 매체 언어 교육 양상도 볼 수 있었다. 더욱이 매체 언어 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주는 문제의식은 아주 의미심장하게 보았다. 토론자로서 이들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발표문에서 미처 읽어 내지 못한 견해를 묻고 매체 언어 교육에 대하여 국어과 교육이 해결해야할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1. 경계의 모호함과 가르기의 불확정성에 관하여

1-1. 매체와 매체 텍스트, 매체 언어의 구분 가능성, 혹은 필요성에 관하여 어떤 견해를 가져야 합리적이고 옳은가?

1-2. 듣기나 읽기와 '보기'가 전혀 다른 기호 인지 방식이라 볼 수 있는가? 매체 언어과 음성 언어 및 문자 언어의 경계 설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가령 학생들이 베스트셀러와 같은 책을 읽으면 매체 언어의 경험인가, 문자 언어의 경험인가? 이 같은 물음은 라디오 방송 듣기와 같은 음성 언어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1-3. 이들 문제는 모두 학문적 논의나 교육의 수행에서 음성 언어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개념 및 영역을 확장할 것인가, '보기'

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매체 언어 교육의 독자적 영역을 개척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어떤 방식이 더 합리적이고 온당한가?

1-4. 이런 문제가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 매체를 영역의 위상으로 설정하고 정립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2. 매체 언어의 독자성과 위상에 관하여

2-1. 매체 언어의 독자성은 시각화된 담문(text)의 언어 기호성에 있지 않을까? 가령 그림동화의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의 각종 담문에서 음성 언어와 문자 기호를 제외하고 남겨지는 기호성이 매체 언어의 독자성을 이룬다고 보면 무리인가?

2-2. 시각화된 담문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이해와 표현을 읽기와 쓰기 교육에서 다루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사진 읽기, 영화 읽기는 안 되는가? 그림으로 표현하기, 동영상 찍기(제작하기) 등을 쓰기 교육에서 담당할 수 없는가?

2-3. 심화 과목으로서 굳이 매체 과목, 혹은 매체 언어 과목까지 필요한가? 또 매체 언어 과목이라면 그것은 국어 교과와 어떻게 다르며 어떤 점에서 독자적인가? 매체 과목이라면 그 과목의 독자적 위상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발표문에 매체, 매체 언어, 매체 텍스트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고, 발표자가 어떠한 의도를 갖고 이들을 구분하여 쓴 듯하나, 그 의도를 읽어 낼 수 없었다. 부연 설명을 청하며 토론을 마무리한다. 우문이나 오독이 있다면 너그러운 양해를 구한다.